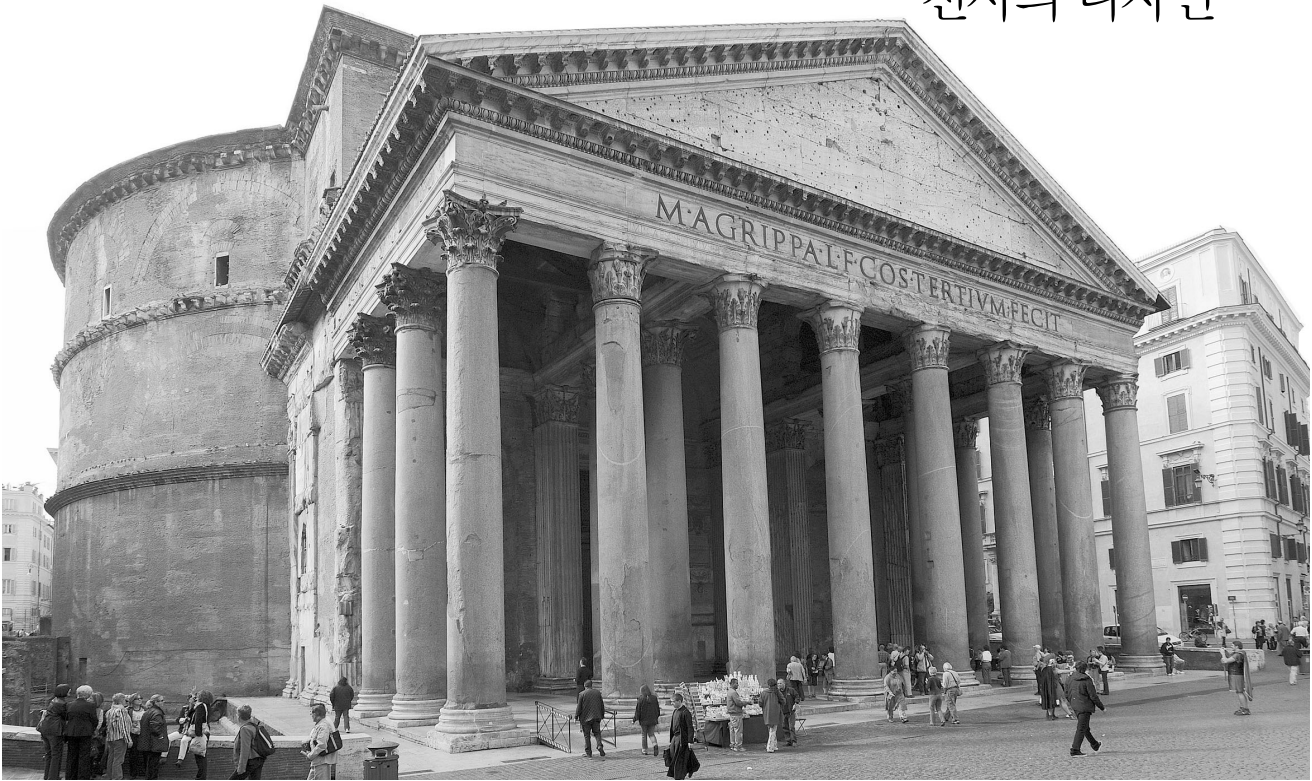


고대 로마의 神殿 판테온

- '천사의 디자인'



성 유 경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
 sungyk@cerik.re.kr

로마 도시를 걷다보면 곳곳에서 역사책과 미술책에서 봤음직한 건축물들을 만날 수 있다. 로마는 도시 전체가 문화재라는 말이 맞는 듯하다. 그런데 '판테온(Pantheon)'은 그 중에서도 단연 이목을 집중시키는 건축물이다. 판테온 앞 광장에는 사람들이 붐빈다. 판테온을 보기 위해 방문한 관광객들과 오가는 로마 시민들이다.

광장 한쪽에는 보따리상들이 자리잡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작은 공연이 펼쳐지며, 주변의 카페 테라스에서는 사람들의 도란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들

은 모두 21세기의 삶에서 고대 로마인들이 만든 최고의 건축물과 만나고 있다.

2세기에 현 모습 갖춰

판테온의 나이를 생각하면 입구에 출입 불가의 표지판이 붙을 법도 하지만, 예상과 달리 카톨릭 성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판테온에서는 미사가 진행되기도 하며, 입장도 자유롭다. 판테온에 올리던 로마 황제의 연설은 사람들의 감탄과 미사 중의 기도 소리로 바뀌었지만, 판테온 내부로 들어서며 나누는 대화는 고대 로마

인류 역사와 함께한 건설 상품 100선 70

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여전히 당시와 같은 감동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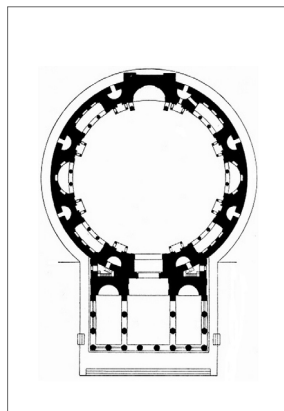
실용성을 중시하는 것은 로마 문화의 특징인데, 특히 법과 토목, 건축 기술 부분이 크게 발전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여겨진다. 도시간 연결을 위한 포장 도로, 도시의 물 공급을 위한 수로, 교량, 극장과 경기장, 공중 목욕탕 등 로마가 남긴 건설 상품들은 지금도 존경심을 주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들을 건설하기 위해 아치, 볼트, 돔, 콘크리트 등 건설 구조 기술과 재료의 발전도 이뤄졌다. 판테온 역시 돔과 콘크리트 등 당대의 최고 기술로 완성된 것이다.

판테온은 기원전 27년 아그리파에 의해 건설되었다. 판테온 정면의 삼각 지붕에는 “M·AGRIPPA·L·F·COS·TERTIVM·FECIT”라고 새겨진 글이 보이는데, 이것은 ‘루시우스의 아들이자 세 번의 로마 총독이었던 마르쿠스 아그리파가 지었다’는 뜻이라고 한다. 처음 건축되었던 모습은 이후 화재와 벼락 등으로 소실되고, 지금의 모습은 서기 118~128년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재건으로 갖추게 된 것이다. 3세기경에도 세베루스와 카라칼라 황제에 의해 보수되었는데, 판테온의 벽에는 이런 보수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한다.

콘크리트 돔...

고대 건축의 ‘백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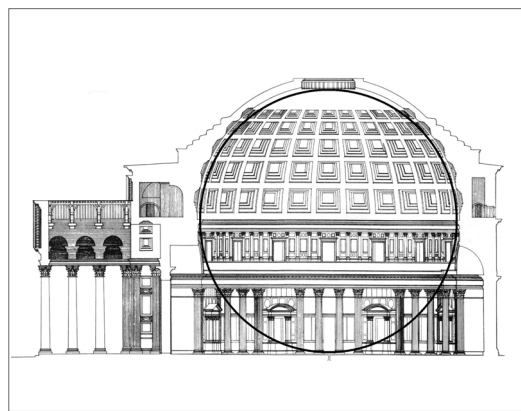
판테온의 평면은 직사각형의 현관과 원형의 실내로 구분된다. 정면의 현관에는 12.5m 높이의 기둥들이 줄지어 있는데, 이 열주와 입구의 철문을 통해 판테온의 실내로 들어서



게 된다. 판테온의 내부는 창문 없는 두꺼운 벽체가 둥글게 감싸 안고 있으며, 머리 위로는 거대한 돔이 닫혀 있다. 판테온의 돔은 19세기까지도 가장 폭이 넓은 돔으로 남아 있었으며, 판테온의 건축적인 미, 역사성과 같은 여러 가지 탁월함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부분이다. 돔의 지름은 43.3m이며 반구 모양을 한 돔의 높이는 22m이다. 바닥에서 돔까지의 높이는 돔의 지름과 같은 43.3미터인데, 아파트 1층의 높이를 3m로 했을 때 대략 14층에 해당하는 높이이다. 한편 돔의 지름과 높이는 1:1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 판테온의 내부 공간은 지름 43.3m의 구가 내접하는 모양이 된다(판테온 단면도 참조).

1,800년 간 유지된 이 거대한 돔의 재료로는 콘크리트가 사용되었다. 콘크리트는 내구성이 좋은 재료였지만, 콘크리트 돔 자체의 엄청난 무게는 큰 문제였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로 된 돔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또 돔에는 압축력뿐만 아니라 당기는 힘인 인장력이 생기는데, 특히 돔의 테두리에서 크게 작용한다. 반면 콘크리트는 인장력에 매우 약한 재료로, 현대 건축물들은 인장력에 강한 철근을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철근도 없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돔의 두께와 재료를



(좌)판테온 평면도, (우)판테온 단면도.



18세기 판테온의 실내. 조반니 파올로 파니니의 그림.

높이에 따라 다르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돔 하부에서 6.2m에 달하는 두께는 상부로 가며 2.2m까지 줄어들어 상부 돔의 무게를 줄인다. 또 돔의 안쪽에는 정사각형으로 오목하게 파인 장식 면들이 있는데 돔의 무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콘크리트에 배합되는 재료도 돔의 높이에 따라 달라졌다. 돔의 상부에는 시멘트 반죽에 가벼운 돌을 섞은 콘크리트가 사용되었고, 돔의 하부에는 단단하고 무거운 돌이 사용되었다.

판테온은 동일 재료, 동일 구조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공간 이상으로 건축된 것이 분명하다. 같은 방식으로 돔을 만든다면 이것은 현재의 기술자들도 골치 썩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사람이 아닌 천사의 디자인’

돔 한가운데에는 원형의 천창이 있다. 천창은 창문

이 하나도 없는 판테온의 내부에 조명이 되어주며, 우주를 상징하는 돔과 짝을 이루어 태양을 상징하고 있다. 여기로는 비가 들이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입구의 철문을 닫으면 내부의 더워진 공기가 위로 상승하여 천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처음 건설되었을 당시 돔의 내부 면에는 청동 장식들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원형 천창을 통해 들어온 빛은 바닥의 대리석과 청동 장식 등에 반사되며 판테온 내부에 또 다른 하늘과 땅을 만들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돔의 공학적, 건축적 기술뿐만 아니라 공간이 주는 신비와 상징, 비례의 미 등을 통해 경외심을 갖게 된다. 미켈란젤로가 판테온을 ‘사람이 아닌 천사의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판(Pan)은 그리스어로 ‘모든’, 테온(theon)은 ‘신’을 의미하며, 판테온은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의 의미를 가진다. 판테온이란 명칭은 지금도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는데, 그것은 단어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판테온이라는 건축물이 남긴 영향력 때문일 것이다. 판테온의 형태와 공간은 다른 건축물들에 모방되어 왔으며, 판테온의 돔보다 더 큰 돔을 만들기 위한 도전도 계속되었다. 판테온의 존재는 실로 많은 세대에 영감을 주어왔다.

현재는 판테온을 건설할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다. 초고층 건축, 장대교량 등 놀라운 건설 상품들이 경쟁하듯 건설되고 있으며, 이미 현대인들은 일상에서 거대한 규모의 건축물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판테온은 여전히 사람들을 감탄케 하며, 고대 로마의 건설 상품을 보기 위한 발길은 끊이지 않는다. 판테온을 찾는 이들은 지금도 기술적 한계를 넘어선 1,800년 전의 건설 상품과 그것을 건설한 로마인들에게 매료될 것이다. CERIK